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효과

김은정¹, 김해란^{2*}

¹호남대학교 간호학과, ²조선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Baby Care using Doll on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and Recognition of Unmarried Mothers in Nursing Students

Eun-Jung Kim¹, Hae-Ra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총 104명이었다. 대조군은 강의식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실시한 후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12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피임태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4.66$, $p<.001$),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23$, $p=.028$) 특히, 쾌락유희성이 통계적으로 유하게 감소하게 나타났다($t=3.96$, $p<.001$). 미혼모 인식은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8$, $p=.937$)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피임태도와 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강의식 성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방법의 활용이 요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baby care using dolls on nursing students'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and recognition of unmarried mothers.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4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The control group (n=52) received lecture sex education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n=52) received lecture sex education and baby care education using a doll. The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and unmarried mother's recognition were then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7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s, and t-tests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The scores of contraceptive attitude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4.66$, $p<.001$). Additionally, the sexual attitude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2.23$, $p=0.028$), with pleasure playfulness showing a significant decrease ($F=3.96$, $p<.001$). However, recognition of unmarried mother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groups ($t=-0.08$, $p=0.937$).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baby care using a doll has positive effects on contraceptive attitude and sexual attitude. In the future, effective sex education should include methods that complement lectures.

Keywords :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Unmarried mothers, Student, Doll

*Corresponding Author : Hae-Ran Kim(Chosun Univ.)

Tel: +82-10-5673-5574 email: rahn00@chosun.ac.kr

Received August 27, 2018

Revised (1st September 19, 2018, 2nd October 2,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사상들도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빠른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각종 매체들과 스마트폰을 통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지속적으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의식 또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변화하며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첫 성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1]. 특히나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생활에 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대학시절부터는 성적활동이 활발해지며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의 기점이 된다[2]. 대학생은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 충동이 가장 왕성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한 상태이지만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은 어려운 상태이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직업의 선택, 결혼 등의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응,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학생들의 성경험은 남학생 71.5%, 여학생 60.2%로 평균적으로 68.6%이 성경험이 있었다[3]. 또한 성별, 학년, 음주, 흡연, 이성교제, 성역할의 정체성, 성의식, 성지식 등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성경험의 증가와 함께 원치 않은 임신, 성매개 감염병 등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3,4].

이러한 성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임은 대학생들이 충동적이거나 무지로 인해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5], 특히 개인이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사용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피임태도는 개인이 피임실천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2]. 피임태도가 단순한 피임 지식보다는 피임사용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수록 피임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며 피임행위를 실천하려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성경험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임태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6].

성태도는 성에 대한 이념, 지각과 성향으로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의미하며, 대학생 때 형성된 성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성인기와 사회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특히 대학생들의 성태도는 성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증가하는데 비해 성적인 행동과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체계에 대한 확립이 완전하

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성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3]. 잘못된 성태도는 성매개성 질환의 감염이나 원치 않은 임신, 낙태, 미혼모와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올바른 성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8].

미혼모는 2015년 2만 4천명 보고되고 있으며, 혼외 출생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9].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정형화된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10]. 미혼모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건강과 보건, 영양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 보육교사 등 전문가 집단을 만나게 될 것이며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미혼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이나 전문가 집단이 될 보건의료 대학생들에게 미혼모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건교육에 성교육을 포함하여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11]. 대학생들은 1년에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의무사항이 없어 실제 학생들의 교육 이수율은 33.5%에 불과하다[12]. 이처럼 학교의 사정이나 보건교사, 성교육 강사에 따라 성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가 심하고 환경에 따라 성교육이 감소되기도 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성교육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1].

미국의 일부학교나 다른 나라에서는 성교육의 일환으로 센서가 달린 인형(Real care baby, BTIO; Baby Think It Over)[13]을 2주 동안 키우면서 인형이 울면 놀아주기, 밥 주기, 기저귀 갈기 등의 카드를 콧아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14,15].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의 일환으로 하루 24시간 동안 유아 시뮬레이터를 돌보는 프로그램 후 유아관련 책임과 성행동, 미혼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16], 유아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17]에서도 부모가 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유아 돌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여 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14-19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BTIO를 사용한 교육 후 피임태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의 양육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고 보고하

고 있다[18]. 이와 같이 육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교육은 성행동, 성태도, 피임행동, 미혼부모의 인식, 유아 관련 책임이나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강의식 성교육 외에 실습 형태의 성교육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미 대학생들의 성교육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보다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론위주의 수업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있어 성교육의 내용이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고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식 성교육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피임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미혼모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G 광역시에 위치한 H 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 큰 효과크기 .80, 유의수준(α)=.05, 검정력 .80을 적용 시 최소 대상자 수는 총 52명, 각 집단별 26명이었다. 탈락을 고려하여 실험군 55명, 대조군 55명을 연구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개인적 사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최종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52명, 대조군 52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피임태도

피임태도는 김선정[20]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고정심[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5점부터 2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선정[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5, 고정심[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 이었다.

2.3.2 성태도

성태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호선민[21]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육체적 성관계에 대한 쾌락·유희적 성(11문항), 혼전순결(7문항), 결혼관(7문항), 성 허용성(6문항), 동성애(5문항), 낙태(6문항) 등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호선민[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93 이었고, 우근희[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6~.9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 이었다.

2.3.3 미혼모 인식

도구는 황인명[2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미혼모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황인

명[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1041223-201603-HR-002)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결과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중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연구진행절차

대상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H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은 아기돌보기의 현실감이 떨어질 있어 제외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다음 대상자들에게 일반적 사항,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묻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1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함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전문가를 통하여 받았다. 이후 실험군에게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진행하였으며, 아기돌보기가 끝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조사 때와 같이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5.1 강의식 성교육

실험군과 대조군은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의식으로 성교육 전문가를 통하여 받았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행위, 성문제, 성폭행과 성추행의

개념과 종류, 성폭력 사례를 통한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강의시간은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중 3분 가량의 동영상 시청이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2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실험군에게만 인형을 활용한 아기돌보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아기돌보기에 사용된 인형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실물크기의 배렝구어 인형을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고 학기 중임을 고려하여 주말에 아기돌보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2번의 날짜를 공지 후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기돌보기는 개발된 BTIO와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BTIO는 24~48시간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수면시간은 1~4시간으로 맞추어져 있고, 유아를 거칠게 다루거나 바른 자세가 아닌 경우 멈출 수 없는 울음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24시간동안 진행하였으며, 본인 일정에 맞추어 시작하고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24시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BTIO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형은 신생아와 유사한 크기의 단순한 인형이므로 아기를 돌보는 행동을 시간과 함께 일지로 작성하고, 핸드폰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아기돌보기라는 목적에 맞추어 대상자들에게 신생아 돌보는 일정과 유사하게 목욕과 아침세안 각 1회, 수유 간격을 4시간으로 총 6번 실시하고 수유 시 5분 동안 수유하고 수유 후 3분정도 안고 트림을 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기저귀도 3~4시간 간격으로 7번 정도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에 1~2번 아기와 눈맞춤하며 놀아주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아기 인형, 신생아 기저귀, 우유병, 베넷저고리 2벌, 속싸개 2개를 제공하였고, 아기돌보기가 끝난 후 기저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도록 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비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서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은 t-test와 Chi-square test 이용하여 검정하였고, 이후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사후 차이 검정은 t-test를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2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의 집단 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 모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3 가설 검증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피임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1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피임태도는 21.71점에서 25.38점으로 증가하였지만, 대조군의 피임태도는 22.08점에서 22.98점으로($t=4.66, p<=.001$) 약간 증가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성태도는 128.06점에서 123.98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의 성태도는 127.73점에서 128.48점으로($t=-2.23, p=.028$) 증가하여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2). 하부영역의 쾌락유희성은 실험군에서 33.23점에서 29.42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32.48점에서 34.06점으로($t=3.96, p<=.001$) 증가하였으나 그 외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은 강의식 성교육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미혼모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군의 미혼모인식은 37.21점에서 37.62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미혼모인식도 36.06점에서 36.60점으로($t=-0.08, p=.937$) 증가하였지만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제 3가설은 기각되었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 Groups

(N=104)

Categories		Exp. (n=52)	Cont. (n=52)	χ^2 of t	p
		n(%) or M±SD	n(%) or M±SD		
Age(yr)		21.35±1.41	22.2±2.89	0.27	.512
Gender	Male	7(13.5)	9(17.6)	0.30	.787
	Female	45(86.5)	42(82.4)		
Parents' attitude on sex	Open minded	8(15.4)	6(11.8)	4.18	.123
	Neutral	26(50.0)	35(68.6)		
	Conservative	18(34.6)	10(19.6)		
Sexual education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9(17.3)	6(11.8)	7.09	.131
	Normal	36(69.2)	28(54.9)		
	Satisfaction	7(13.5)	17(33.3)		
Information source	Family	2(3.80)	2(3.9)	5.92	.549
	Books	11(21.1)	8(15.7)		
	Friends	18(34.6)	19(37.3)		
	Media	21(40.4)	19(37.3)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ontraceptive attitude, Sexual attitude, Unmarried mother recogni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t Pretest

(N=104)

Categories		Exp. (n=52)	Cont. (n=52)	χ^2 of t	p
		n(%) or M±SD	n(%) or M±SD		
Contraceptive attitude		21.71± 1.81	22.08± 2.06	-0.96	.338
Sexual attitude	total	128.06±11.62	127.73±10.26	0.15	.879
	Pleasure playfulness	33.23± 5.90	32.48± 4.38	0.74	.463
	Premarital purity	20.48± 3.78	20.62± 4.32	-0.17	.866
	view of marriage	22.40± 2.38	22.31± 2.68	0.19	.847
	Sex permission	15.87± 3.14	16.21± 3.20	-0.56	.579
	Homosexuality	17.44± 4.90	17.42± 5.16	0.02	.984
	abortion	18.63± 2.10	18.69± 2.50	-0.13	.899
Unmarried mother recognition		37.21± 6.18	36.06± 5.97	0.97	.335

Table 3. Differences in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04)

Variable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Contraceptive attitude		Exp. (n=52)	21.71± 1.81	25.38± 2.41	1.67± 3.07	4.66	<.001
		Cont. (n=52)	22.08± 2.06	22.98± 2.33	-1.09±3.04		
Sexual attitude	total	Exp. (n=52)	128.06±11.62	123.98± 5.81	-4.08±13.42	-2.23	.028
		Cont. (n=52)	127.73±10.26	128.48±10.31	1.75±13.19		
	Pleasure playfulness	Exp. (n=52)	33.23± 5.90	29.42± 6.01	-3.81± 7.58	-3.96	<.001
		Cont. (n=52)	32.48± 4.38	34.06± 5.66	1.58± 6.22		
	Premarital purity	Exp. (n=52)	20.48± 3.78	21.38± 4.50	0.90± 5.09	0.08	.564
		Cont. (n=52)	20.62± 4.32	20.88± 3.62	0.27± 6.04		
	View of marriage	Exp. (n=52)	22.40± 2.38	21.79± 2.16	-0.62± 3.12	0.03	.977
		Cont. (n=52)	22.31± 2.68	21.67± 2.36	-0.63± 3.76		
	Sex permission	Exp. (n=52)	15.87± 3.14	15.54± 2.82	-0.33± 3.49	-1.27	.209
		Cont. (n=52)	16.21± 3.20	16.83± 2.21	0.62± 4.08		
	Homosexuality	Exp. (n=52)	17.44± 4.90	18.40± 4.31	0.96± 6.75	0.05	.641
		Cont. (n=52)	17.42± 5.16	17.81± 3.81	0.38± 5.78		
	abortion	Exp. (n=52)	18.63± 2.10	17.44± 2.56	-1.19± 3.15	-1.10	.272
		Cont. (n=52)	18.69± 2.50	18.23± 2.21	-0.46± 3.58		
Unmarried mother recognition		Exp. (n=52)	37.21± 6.18	37.62± 6.22	0.40± 8.11	-0.08	.937
		Cont. (n=52)	36.06± 5.97	36.60± 6.59	0.54± 9.25		

4. 논의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지만[2], 성교육은 형식적이고 진부한 내용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1].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을 알아보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의식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만 받은 대조군과 강의식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후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의 피임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피임태도가 높아짐을 의미하였다. 피임태도는 피임에 대한 단순 지식이 아니라 피임에 대한 방법, 책임, 의사소통, 실천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임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피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피임행위를 실천하려는 책임감을 갖는다[24] 그러나 대학생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임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피임태도와 피임지식,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나 영향에 대한 연구들로 직접적인 비교 또한 어려웠다. 대학생들은 토론식의 성교육의 방법과 일방적인 전달식 방법보다는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하며 강의식으로 진행

된 성교육은 실질적인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결과[2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토론, 실습, 상황극 등의 다양한 방법의 성교육 후 피임태도가 향상된 선행연구[26]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BTIO적용하여 피임태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18]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학습이 있었고, 아기돌보기를 통하여 경험한 어려움이 임신위험에 대한 인지를 더 많이 하여 피임에 대한 태도가 강의식 교육보다 유의하게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향후 대학생을 위한 피임태도에 대한 교육 시 피임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의식 교육만 받은 대조군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의 성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실험군에서 성태도 점수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성태도가 연구 전보다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BTIO를 이용한 교육 후 성태도와 성지식에 차이가 없었다던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27], 청소년을 대상으로 BTIO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23]와는 일치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며, 성태도 점수가 210점 만

점에서 126.63점이었던 선행연구[28]결과보다 본 연구에서는 강의식 성교육을 받은 대조군이 128.48점보다도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123.98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BTIO의 교육 후 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에 대해 배우게 되고, 이는 성행동에 참여하기 전에 생각하여 성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16]와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하부영역에서는 쾌락유희적 성이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쾌락유희적 성 허용도가 높아질수록 혼전 성관계 허용도와 혼전 성관계의 경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22]를 비교하였을 때 쾌락만을 위한 성 행동에 대한 태도가 감소되어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건강한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고 성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남희 등의 선행연구[28]에서의 혼전순결은 19.87점, 호선민의 연구[21]에서는 19.95점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사전사후 모두 20점 이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것과 남녀의 비율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동성에 항목도 호선민[21]의 연구에서는 13.95점, 김남희 등[28]의 연구에서는 16.38점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17~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성의식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기회가 증가되어 폐쇄적이던 시각들이 많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성교육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시에는 변화하고 있는 성태도에 맞추어 성교육의 내용을 추가변경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에 대한 태도들은 단시간에 변화되기 어려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27]의 결과처럼 교육 시간을 다양하게 하여 결과를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의식 교육만 받은 대조군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에서 미혼모 인식은 사전사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혼모 인식은 65점 만점에서 평균 36~37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에게 BTIO 교육이 미혼부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16]는 반대되는 결과이지만, 한국의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결과[22]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선행연구 비교가 어렵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도구의 구성문화에 사회제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에는 미혼모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사회가 여전히 비행, 일탈과 같은 부정적 시각으로 미혼모를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29]. 가족관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혼모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혼인관계 없이 출산을 한 여성이며, 그 출산은 가족의 정당성의 승인이라는 엄격한 잣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30]. 특히 미혼모들은 발달과 관련된 과업의 지연, 학업중단의 문제, 저학력으로 인한 낮은 질의 노동, 자녀 양육,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31]. 이에 의료 종사자나 공무원, 보육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되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과 미혼모 가족의 특성, 유아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미혼모나 동거형태의 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인정과 법과 제도의 변화 및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32].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한적이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11]. 외국에서는 아기와 비슷한 인형(Real care baby, BTIO; Baby Think It Over)이 성교육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성행동이나 성관계, 임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8학년부터 11학년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일주일, 15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BTIO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40\$정도로 비싼 금액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아기크기 정도(50cm)의 베렝 구어 인형은 인터넷에서 3만원으로 BTIO에 비하여 경제적이었지만 센서가 없어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아 학습자 스스로 몰입하여 아기 돌보기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 내용을 동영상과 기록을 통한 자가보고 해야 하므로 현실성(reality)이 떨어져 중학생이하의 저학년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 전문가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은 관리자,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성건강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성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실제적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이므로 실험의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며,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성교육 방법에 따라 피임태도, 성태도, 미혼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강의식 성교육보다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피임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성태도에는 폐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전공이나 다른 연령의 집단에게도 반복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와 동일한 크기의 단순 인형을 이용하였지만, 실제 외국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인형을 이용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4시간을 아기돌보기를 시행하였으나, 추후에는 시간을 다양화하여 적용 후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대의 흐름과 변화되고 있는 성문화에 맞추어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Ahn, I. Park, J. S. Han, T. I. Kim, M. S. Kwak, H. S. Chung,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14, No. 3 pp. 205-212, 2008.
- [2] K. S. Koh, "Mediating effects of birth control knowledge in relation to effects of high schoolers' birth control self-efficacy on birth contro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2014.
- [3] J. A. Kim, J. Y. Le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the related predicting factors for sexual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40, No. 3. pp. 71-80, 2014.
- [4] G. Y. Lee, I. O. Sim,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 34, pp. 159-182, 2013.
- [5] J. E. Song, H. J. Chai,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about contraceptives according to sex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16, No. 4 pp. 399-408, 2010.
DOI: <https://dx.doi.org/10.4069/kjwhn.2010.16.4.399>
- [6] J. H. Choi, K. E. Kim, M. A. Shin,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use among college students: function of gender, age, and residence",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Vol. 19, No. 3 pp. 511-522, 2010.
DOI: <https://dx.doi.org/10.5934/KJHE.2010.19.3.511>
- [7] E. M. Kim, S. J. Yoo, M. R. Song,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1 pp. 18-26, 2013.
DOI: <https://dx.doi.org/10.7739/jkafn.2013.20.1.18>
- [8] E. M. Lee, G. Y. Kim,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sexual attitude of parents, and depression on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5, No. 3 pp. 155-161, 201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3.155>
- [9] Statistics Korea, "Single-parent Family Survey", 2015.
- [10] J. H. Sung, H. J. Kim, M. J. Lee, Y. M. Park,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in interaction with public service professionals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during pregnancy, birth and child ca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6, No. 8 pp. 404-418, 2016.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6.16.08.404>
- [11] O. Y. Woo, "The flow of school sex education, issues and task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pp. 33-50, 2018.
- [1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Gender equality policy annual average report", 2017.
- [13] R. Jurmaine, "Think it over(R)". Available from baby think it over(R) Inc., 2709 Mondovi Road, Eau Claire, WI 54701, 1994.
- [14] D. Anda, "Baby Think It Over: evaluation of an infant simulation intervention for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Health Social Work*, Vol. 31, No. 1 pp. 26-35, 2006.
DOI: <https://doi.org/10.1093/hsw/31.1.26>
- [15] S. A. Brinkman, S. E. Johnson, J. P. Codde, M. B. Hart, J. A. Straton, M. N. Mittinty, S. R. Silburn, "Efficacy of infant simulator programmes to prevent teenage pregnancy: a school-based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 trial in Western Australia”, *The Lancet*, Vol. 388, No.5 pp. 2264-2271, 2016.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16\)30384-1](https://doi.org/10.1016/S0140-6736(16)30384-1)
- [16] J. H. Divine, G. Cobbs, “The effects of infant simulators on early adolescents”, *Adolescence*, Vol. 36, No. 143 pp. 593-600, 2001.
- [17] J. E. Barnett, C. S. Hurst, “Do adolescents take baby think it over’ seriously?”, *Adolescence*, Vol. 39, No. 153 pp. 65-75, 2004.
- [18] J. W. Out, K. D. Lafreniere, “BABY THINK IT OVER: using role-play to prevent teen pregnancy”, *Adolescence*, Vol. 36, No. 143 pp. 571-582, 2001.
- [19] N. S. Woo, M. S. Park, W. K. Choi,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xual knowledge, behavior and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ia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4 pp. 127-150, 2006.
- [20] S. J. Kim, “Effectiveness of video-based intervention on contraception for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University, Seoul, 2003.
- [21]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09.
- [22] G. H. Wo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Kongju, 2011.
- [23] I. M. Hwang,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 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gi University, Daejeon, 2009.
- [24] J. Y. Cho, S. W. Han, M. S. Song, “Personality-based contracep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 12, No. 4 pp. 338-347, 2006.
- [25] M. H. Hur, H. Y. Ahn, E. A. Kwak, K. M. Kim, J. Y. Park, J. I. R. Lee,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7, No. 3 pp. 267-275, 2007.
DOI: <https://dx.doi.org/10.4040/jkan.2007.37.3.267>
- [26] Y. J. Kim, D. H. Kim, J. H. Park, “ The effects of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on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attitude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246-25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246>
- [27] J. E. Barnett, “Evaluating ‘Baby Think It Over’ infant simulators: a comparison group study”, *Adolescence*, Vol. 41, No. 161 pp. 103-110, 2006.
- [28] N. H. Kim, Y. J. Park, H. S. Jung,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Service Association*, Vol. 7, No. 2 pp. 17-42, 2015.
- [29] S. J. Choi, J. Y. Kim, “Attitudes toward adolescent pregnancy and childbirth on the single mother students’ perception of right to lear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ingle mother student contact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 Vol. 17, No. 3 pp. 137-156, 2015.
- [30] H. Y. Kim,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Gender and Culture*, Vol. 6, No. 1 pp. 7-41, 2013.
- [31] S. K. Kim, C. R. Kim, J. H. Jang, J. N. Choi, “A study on welfare policy for the unmarried mothers”, *The Journal of Ewha Public Administration*, Vol. 10, pp. 1-24, 2011.
- [32] R. Partain, “Comparative family law, Korean family law, and the missing definitions of family”, *Hongik University Journal of Law*, Vol. 13, No. 2, pp. 215-246, 2012.
DOI: <https://dx.doi.org/10.16960/jhrl.13.2.201206.215>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김 해 란(Hae-Ra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3월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8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